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예수,마리아,요셉의 성가정 축일
제34권 5호(가해) 2013-12-29

[묵상]



나자렛의 성가정을 기억하며 각자의 가정을 주님께 봉헌합시다.

성가정이란?

서로 존중하는 가정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존중하되
하느님이 짝지어주신 나의 반려자로서
하느님이 주신 나의 부모로서
하느님이 주신 나의 자식으로서 존중해야 합니다.

하느님으로 존중하는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입니다.
부부는 나의 다른 반쪽을 통해서 하느님의 완전성을 이루고
자식은 부모에게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고
부모는 자기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느님 뜻에 따라 자녀를 대하고 훈육해야 할 것입니다.

성가정은 하느님이 중심으로 계신 집이며
하느님의 사랑이 넘치는 집이며
하느님의 사랑이 넘쳐 이웃에게로 향해가는 집입니다.
하느님 사랑은 반드시 우리 집을 채우고 넘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에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3:00 오후 6:00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권정남 마리아, 임재화 안나, 신대진 베드로,
특전미사	(생)김지수 보나 & 김지에 크리스티나, 이태이벳 & 앤 가정, 안재성 가브리엘 & 사비나 가정, 김학수 바오로, 송재민 루카 & 미래 세라피나 가정,
주 일 낮 미사	(연)신대진 베드로, 이경용 야고보, 유정복베네딕타, 이명자로사, 이용식 베드로, 이윤조 클라라, 최근석 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안준환 미카엘, 김왕기, 김만성, 정학순 발바라, 김형태 야고보, 김차욱 요셉 & 김복남 마리아, 김상연 마리아, 권정 요셉 (생)김명숙 루실라 & 김택수 프란치스코 가정, 오아타나시오와 루치아의 대자녀들, 이복림 엘리사벳, 서완덕 부르노 & 서은혜 이사벨라, 정영로 미카엘 & 정미영 미카엘라 가정, 지경수 마테오 & 지정한 안젤라 가정, 최재은 베드로 & 최길숙 요세피나, 김영길 안드레아, 김복희 로사리아, 유철희 바오로 & 유현자 안나 가정, 정동호 하상바오로 & 정병옥 율리아 가정, 윤희동 안토니오와 세라피나의 대자녀들, 최상만 사비노 & 최양숙 안젤라 가정, 박원철 다니엘 & 박희자 마리아 가정, 토런스 북구역 가정들, 조옥중 사도요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집회서(Sirach) 3,2-6.12-14

화답송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밭어 내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제 2독서 콜로새서(Colossians) 3,12-21

복 음2 ○알렐루야.
환호송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복 음 마태오(Matthew) 2,13-15.19-23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46	101	101
봉헌	145	255	261
성체	Ocean	306	284
파견	Feliz Navidad	148	148

올바른 성모신심

제3장 성모공경을 드러내는 기도와 성월

7) 성모 성월

서문에는 성모 성월에 대한 해설과 1822년 비오 7세 교황이 공포한 ‘성모 성월 및 성모 공경에 관한 대사문(大敕文)’이 수록되어 있고, 본문에는 5월의 ‘성모 성월’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총 32일 분량의 묵상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각 날은 그날의 주제에 대한 설명과 성모 마리아에 대한 기도 이어 덕행 실천, 기도 지향, 성인 행적의 예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성모 성월을 정하게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성모 마리아님을 예로써 공경하는 달을 정한 첫 번째 이유는 성모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평생토록 주시는 온갖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이다.……성모 성월을 정한 두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주의 성총이며, 이는 잠시라도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악을 고치고 선을 행하여 선종하는 것은 모두 천주 성총의 도우심 때문이니,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다. 또 성모님의 인자하심에 의뢰하지 않고 이 성총을 얻는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어찌성모님을 공경하고 성모님께 기도하는 데에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세 번째 이유는 성모 성월이 성모님을 특별히 열애하고 공경하는 거룩한 때와 가르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교회 초창기부터 성모 성월 신심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성모 성월의 절정은 성모의 밤 행사이다. 이 행사에서 성모 신심에 관한 강론과 성가, 묵상, 그리고 성모님을 찬미하는 시와 노래, 기도와 꽃다발 등이 봉헌된다.

성모 성월 신심이 지향하는 바는, 하느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겨 신앙과 사랑의 모범이 되신 마리아의 중재로 구원의 은총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참된 성모 공경이란 촛불이나 꽃다발 봉헌이라는 외적 행위보다 하느님 말씀에 대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하느님의 계명에 대한 성실한 준수, 겸손, 고통을 묵묵히 감수하는 인내, 성실하고 항구한 기도의 자세 등 마리아의 삶을 본받는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리아 공경은 결코 하느님 흠숭을 방해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느님 흠숭을 위해 도움이 된다. 이처럼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선행과 기도로써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성모 성월의 참뜻이 있다. <◆계속>

『성모 성월』은 중국에서 전래된 한역 서학서의 하나로, 중국의 예수회 선교사 이탁이 신자들에게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고 선행을 통해 덕행을 쌓는 데 도움을 주고자 쓴 신심서였다. 이 책이 언제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1878년 1월 28일 리델 주교가 체포될 때 압수당하여 소각된 서적 중에 이 책이 두 권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리델 주교가 조선에 재입국한 1877년 9월 23일일 것으로 추정된다.

내면 깊은 목소리

요셉 성인은 자기 삶의 중요한 고비마다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일러주는 대로 좇아갑니다. 성모님을 아내로 맞아들일 때도, 오늘 복음처럼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갈 때도, 또 피난 갔다 나자렛에 돌아와 정착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는 요셉 성인의 성령 체험을 가리키는 것으로써 존재의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집트로 야반도주를 하기 전에 헤로데로부터의 위험 사인들이 감지되고, 요셉 성인 나름대로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삶의 정황 가운데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종종 보니까 말입니다.

물론 요셉 성인처럼 성령의 가리킴과 이끄심을 순순히 좇아간다 해서 현실적인 구체적 삶 속에서 온갖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겪어야 할 어려움은 그대로 다 겪어내야 할지 모릅니다. 다만, 적어도 성령을 따름에서 오는 깊은 내적 평화와 위로가 함께할 것이고, 그들 통해 현실적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었으면 하는 것은 성가정의 이집트 피난 생활이 그저 속히 지나가야만 할, 가능한 빨리 빠져 나와야만 할, 그런 통과의역이고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갖가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지만 이집트 피난 생활 그 자체가 중요한 목적인 만큼 그 상황 속에 깊이 머물며 음미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의미와 가치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필경 요셉 성인과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은 그리하셨을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며 겪어 내야 하는 갖가지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도 이런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 성인이 겪은 이런 깊은 영적 체험들이 우리 삶 안에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향해 온전히 열리고 귀 기울이는 마음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기적은 내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됩니다. 그저 하느님 마음대로 우리 삶속에 개입해 들어와 간섭하시면서 기적을 만드시기도 하고, 내팽개쳐 두기도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에 대한 신뢰와 희망 속에서 이런 마음 자세가 깊게 형성될 때, 평화 중에 어떤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뿐만아니라 자신의 적대자와 심지어 원수까지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까지 만들어집니다.

끝으로, 오늘 복음을 통해 가장으로서의 요셉 성인의 모습을 깊이 음미함이 유익하겠습니다. 한집안에서 가정의 위상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그마한 학교도, 기업도, 나아가 국가도,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책임자의 몫이 얼마나 큰지, 그 지도자의 모습 여하에 따라 조직과 구성원 전체가 얼마나 다른 양상을 띠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난한 현실 가운데 가정에, 학교에, 기업에, 국가에,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유시찬 보나벤투라 신부 / 예수회

굽어보소서, 성모님

태어나지 못한 수많은 아기들을 굽어보소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을 굽어보소서.
무자비한 폭력의 제물이 되고 있는
남녀들을 굽어보소서.
무관심이나 그릇된 자비로 죽임을 당하는
노인과 병자들을 굽어보소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105항

이번주 전례봉헌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은지 수산나	신덕례 데레사	박희자 마리아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박진수 스테파노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반

다음주 전례봉헌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아영 아가다	이호미 엘리사벳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이민상 사도요한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송년 / 새해 미사 안내

◆ 송년감사 미사 : 31일(화) 밤11시

<천주의 성모마리아대축일 특전미사를 겸하지 않습니다.>

한해의 끝자락에 이르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삶을 위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용서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합니다.

◆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미사 : 2014년 1월1일(수) 오전 11시

1월1일(수)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며 '세계 평화의 날'로 미사에 참례해야하는 의무 대축일입니다. 지역마다 다른 날짜에 기념해 오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은 1931년부터 전 세계 교회의 보편 축일이 되었고, 1970년부터 모든 교회에서 해마다 1월1일에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교황 바오로 6세는 이 날을 1968년부터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세계 평화의 날'로 정했습니다.

◆ 한해를 보내며... 송년 저녁식사에 전신자를 초대합니다.

올한해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신 주님과 본당을 위해 애쓰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본당의 모든 교우들을 저녁식사에 초대합니다. 많이들 참석하시어 서로 축복을 빌어주시고 즐거운 시간 되기 바랍니다.

- 일시 : 오늘 주일(29일) 오후 5시
- 장소 : 본당 친교장

◆ 새해(2014년/갑오년/가해) 본당 달력을 선물로 드립니다.

2014년 백삼위본당 달력을 교우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찾아가지 않으신 교우들께선 현관에 마련되어 있는 새해 달력을 가정당 두부씩 가져가기 바랍니다.

- 캘린더 주제 : A형 세계의 아름다운 성당, C형 평화를 구하는 기도 두종류입니다.(가정당 A형,C형 각1부씩)
- 전례력, 독서, 복음, 축일, 절기 등을 담은 새해 달력은 신앙생활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 달력제작에 도움 주신 광고후원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 송년감사미사후 : 생강차 나눔(성모회)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후: 전신자들에게 사목회에서 떡국을 대접합니다.

배론 청년회 소식

◆ '새회원' 크게 환영합니다.

- 대상 : 고등학교 졸업한 남녀 청년들
- 본당 토요특전미사가 청년들이 전례를 봉사하는 청년미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부는 본당의 미래입니다. 부모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자녀들을 청년회에 가입하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해 첫주일(1월5일) 친교자리 음식봉사 : 맛있는 잔치국수로 전신자들을 대접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잡수세요.◎
- * 오늘(28일) 특전미사후 송년모임이 강당에서 마련됩니다. 푸짐한 음식과 다채로운 게임이 진행됩니다.

◆ 2013년 교무금/성전헌금 오늘주일(29일) 마감합니다.

- 올 한해도 교무금과 성전헌금 그리고 특별헌금과 감사헌금을 봉헌해주신 교우여러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내년초 Income Tax Return(개인세금보고)를 앞두고, 올해 낼 교무금이 남아있을 경우 오늘주일 중에 마감해주시면 감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시면 본인의 헌금기록(2013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성당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최근 전교우들이 나서서 성탄맞이 대청소를 구석구석 했습니다. 특히 1,2층 카펫의 얼룩과 먼지를 전문업체가 와서 스팀으로 깨끗이 청소했으니 성전을 포함하여 각 교실을 내집처럼 깨끗하게 사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2월29일(주일) : P.V. 3반(짬뽕밥 \$3)
* 주일학교 방학
- 1월5일(주일) : 배론청년회(전신자에게 잔치국수 대접)
* 주일학교(9학년 김치찌개)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교우들						성전헌금	교우들					
	강미순	권오상	김관기	김상규	김 용	김우용		강미순	권오상	김관기	김 용	김우용	민경근
	김형순	민경근	민기남	배태임	서성용	서정진		민기남	서성용	소성덕	안태갑	엄세종	엄정자
	소성덕	안태갑	엄세종	엄정자	오명섭	오세원		오세원	오수인	오태환	유영균	유철희	윤화경
	오수인	오태환	유영균	유철희	윤분아	윤석구		이경태	이근태	이병우	이석진	이우성	임 순
	윤화경	이경태	이근태	이명선	이병우	이석진		정정연	최미열	홍석인			
	이우성	이재철	임 순	장영진	정남형	정정연							
	최미열	홍석인	황인협										
합계 : \$4,680							합계 : \$2,940						
주일미사 헌금 : \$2,727							감사헌금 : 성낙호 이병우						

공지사항

◆ 주일학교 / 한국학교 겨울방학

- 오늘 주일(29일) 수업 없습니다.
- 오전 9시30분 학생미사는 어른들이 전례를 맡습니다.
- 개학 : 1월5일(주일)

◆ 한인가톨릭 청소년대회(Korean Catholic Youth Day)

- 일시 : 2014년 1월4일(토) 오전 8시30분~오후 7시30분
- 주제 : Lumen Fidei(The Light of Faith)
- 집합시간 : 1월4일 오전 7시30분 성당 파킹랏
- 장소 : Servite 하이스쿨(1952 W. La Palma Av. Anaheim)
- 대상 : 8학년~12학년
- 준비물 : 주일학교 행사 특별 티셔츠 제공
- 문의 : 이인석 주일학교 교장 ☎(213)258-8665
- 주관 : FIAT재단, KCRM

남가주 소식

◆ '커피와 신앙의 만남' 크리스마스 선물용 커피 판매

- 이냐시오 커피 선물세트
- 판매 : LA 성 아그네스 성당(최대제 로베르토 신부)
- 수익금용도 : 신자 비신자 누구라도 즐길 수 있는 커피조성.
- 가난한 이웃돕기
- 문의 : 아그네스 성당 이냐시오 카페 ☎(323)731-4433

◆ 남가주성령쇄신봉사회 '사랑 피정'

- 일시 : 2014년 1월10일~12일(2박3일)
- 주제 : "하느님의 사랑이신 성령" (사랑피정)
- 장소 : 드폴 피정센터
- 강사 : 이상훈 요한 신부(남가주성령쇄신봉사회 지도신부)
- 대상 : 기도회원 & 일반신자
- 참가비 : \$100
- 문의 : 각본당 성령기도회 회장 및 봉사회 총무담당 부회장 나 필립보 ☎(213)369-0173

◆ '좋은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시즌4-발렌타인데이 스페셜

- 미혼 가톨릭 청년들의 유쾌상쾌통쾌한 만남의 자리! 신앙안에서의 좋은 인연의 시작! 서둘러 신청하세요!
- 일시 : 2014년 2월8일(토) 오후 5시
- 대상 : 남자(84-74년생), 여자(86-74년생)
- 장소 : 성 토마스 한인천주교회(412 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 참가비 : \$80 * 신청마감 : 1월26일(주일) 남녀 선착순 20명
- 신청서 : www.stkcc.org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의 : 이창익 라파엘 ☎(858)880-8787

◆ '성령체험 수기' 공모 중

- 내용 : 남가주성령쇄신대회 참가후의 성령체험 수기
- 규격 : Letter 용지 5매내외(글자크기 10포인트)
- 마감 : 2014년 3월31일(당선작발표 : 2014년 4월)

소공동체 12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욱 율리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엄영희 베로니카 213-278-3729 12/14(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12/14(토) 오후 6시 홈타운부패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12/13(금) 오후 6시30분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박근식 미카엘 316-7608 12/8(주일) 오후 5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윤화경 바오로 999-5808 12/14(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박명순 안나 968-7600 12/13(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대례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합동 반모임 12/13(금) 오후 7시 성당
	2	최순옥 스텔라 951-4710	합동 반모임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합동 반모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욱 율리아 404-1607	정병욱 율리아 404-1607 12/16(월) 오후 7시 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서창호 바오로 257-1784 12/14(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남성철 베네딕도 384-3289 12/13(금) 오후 7시
	2	김유미 크리스티아 482-9108	김명 스텔라 482-9208 12/6(금) 오후 7시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정종미 클라라 818-1799 12/13(금) 오후 7시 성당유아실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이은미 가브리엘라 617-3568 12/10(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예수,마리아,요셉의 성가정축일

다음주 단체모임

구역장 / 반장 모임

오후 1시

그리스도인 가정의 삶과 기도

오늘날 가정은 '혼인의 상호관계의 질에 대한 의식, 여성 존엄성의 촉진, 책임 있는 출산, 자녀의 교육' 등에 깊은 관심을 드러냅니다.

이런 의식의 성장과는 달리 부정적 측면도 적지 않음을 우리는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수많은 부부갈등, 이혼으로 인한 가족 해체 등의 현상은, 오늘날 우리 사회 가정의 길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흔히 생각하듯이 단순히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고만 보아 넘길 수 없습니다.

그 근처에는 이 시대의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지 못하는 가정의 삶에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가정의 삶의 어려움과 그늘을 생각할 때, 신앙을 바탕으로 한 그리스도인 가정의 삶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의 길이 외적 물질의 구비와 재물의 충족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하느님의 더 깊은 뜻과 계획에 마음을 개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 타자를 이용하는 사랑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여기에 그리스도인 가정의 삶의 깊은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듯이 부부도 서로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면, 수많은 가정의 문제를 푸는 길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 18,19-20참조) 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장소입니다. 일찍이 교황 바오로 6세께서 남기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병이 났을 때, 그리스도의 고통을 생각하고 성모님과 성인들의 도움을 청하도록 자녀들을 격려하는지요? 가끔이라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며 기도로 감사하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는지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의 삶은 값진 교훈이 되고 하느님께 드리는 훌륭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고 교회를 건설하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위원장 / 황철수 주교

유아 세례를 꼭 받아야 하나요?

한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새롭게 탄생한 생명은 부부에게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에 아버지, 어머니라는 새로운 이름을 더하여 줍니다. 모든 부모는 언제나 내 아이가 세상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까요?

전통적으로 한 사람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완전한 교육으로 지(智), 덕(德), 체(體)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인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윤리와 도덕 교육은 운동장과 교실에서의 가르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덕은 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고 신앙의 중심에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신앙의 성사입니다." 세례자가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유아임에도 불구하고, 유아세례를 신앙의 성사라고 하는 이유는 세례를 청하는 부모의 신앙과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유아는 가족 안에서 보살펴지고 성장하듯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뿌리내리고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부 부모는 신앙 교육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자유로운' 교육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신앙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부모의 신념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학교 교육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입학 여부의 동의를 아이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이의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삶과 죽음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제시하는 신앙으로 인도하는 유아 세례를 강제적이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신자인 부모 자신이 그리스도신앙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진리라고 확신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출생 후 가까운 시일에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면 교회와 부모는 그 아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무한한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는 어린이 자신의 신앙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은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는 부모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가족의 믿음은 자녀가 신앙의 씨앗을 팔아시키는 기쁨진 토양이 됩니다. 부모는 유아에게 깊은 의미와 가치를 지닌 이름을 아이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지어줍니다. 이름은 아이와 하나가 되고 평생동안 함께 성장합니다. 유아 세례는 아이의 자유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는 사랑과 진리이신 하느님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훗날 아이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 달려갈 수 있도록 부모가 해줘야 하는 의무입니다. 유아 세례는 자녀 교육에 가장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사도 10,48)

◆자료 : 서울대교구사목국 연구실